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홍보실 광고팀에서 기업PR 광고 및 제품광고를 맡고 있다. 굴뚝 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2000년 현대모비스로 새롭게 태어난 국내 최대의 자동차부품 전문회사인 현대모비스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받았다.

Q. 현대모비스는? 현대모비스는 IMF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존 사업의 중심이었던 갤로퍼, 싼타모 등의 4륜구동 완성차를 생산하는 차량사업을 현대자동차에, 철도차량사업을 한국철도차량에 양도하고 1999년 말부터 현대자동차에 섀시모듈을 생산,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2000년 11월부로 사명도 옛 현대정공에서 현재의 현대모비스로 바꾸었다.

향후 세계 자동차부품업계‘ Global Top 10 ’에 진입해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21세기 세계 자동차부품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Q. 광고는? 그 동안 현대모비스 광고는 회사입장에서 업의 내용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어 지난 4년간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에게 현대모비스란 어떤 회사인지 널리 알려지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2006년부터는 회사를 기억시키는 것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현대모비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탄생한 광고가‘ 모비스의 법칙 ’이다. 이 광고에서는 남자편(관성의 법칙), 여자편(원심력의 법칙) 두편의 법칙이 만들어 졌는데,‘ 운전자를 위해 자연법칙을 극복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대모비스의 기술력 ’을 기획 컨셉으로 정한 것이다.

특히 ESC, ABS 등 자동차부품의 작동원리를 쉽게 소개하기 위해 자동차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컴퓨터 그래픽을 적용하기도 했다.

Q. 2006년 목표는? 현대모비스가 혁신적인 첨단기술력을 가진 기업임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모비스의 법칙 ’을 다양한 방법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성화시키고, 모비스의 기술력을 한마디로 집약하여 표현해주는 KEY WORD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광고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형 과장, 매체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대리, 가운데 홍보실장 장윤경 이사, 매체관리 및 인터넷 업무 담당 조계용 대리, 광고팀의 막내이자 인터넷 업무 담당인 문승기 사원, 홍보실 부서장 이영훈 차장, 그리고 광고팀장인 황태순 차장

중외제약

1945년 해방과 함께 창업한 중외제약은‘ 생명존중, 개척정신 ’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국내 치료의약품 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현재 수액, 순환기, 항암. 항생제, 생명공학제품, 헬스케어제품 등 국내사 중 최다 치료의약품 보유로 병원용 치료의약품시장의 대표 메이커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창업 초기부터 필수 치료제 개발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오면서 그 동안 고객과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내실 위주의 경영체제를 구축해, 1976년 기업공개 이후 금년까지 30년 연속 흑자를 기록,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액공장 준공

특히 의약분업 이후,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보다 넓은 시야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글로벌 기준의 경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창립 60주년인 지난 2005년에 “ 2010년 매출액 1조, 경상이익 1000억원의 글로벌 헬스케어 컴퍼니 구축"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중외제약은 이러한 비전 달성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 충남 당진군에 세계 최대규모의 수액제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그 동안 국내최대 수액제 전문메이커로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한우물경영

한편 중외제약은 창업 이래‘ 생명 ’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기업이념을 생명에 일관한‘ 한우물경영 ’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념은‘ 98년 고객이 뽑은 모범제약사로 선정됨은 물론 한국경영사학회가 수여하는‘ 제 5회 창업대상 ’을 중견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하고, 2001년 제1회 한국 CEO 대상을 수상, 2003년 대한민국 기업이미지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존경받는 한국 30대기업 ’(동아일보-IBM BCS),‘ 아시아태평양 200대 기업 ’(포브스아시아)으로 선정됨으로써 사회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매출 1조원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외제약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인류의 메디컬 베네핏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높은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정도경영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KAA

지난 5월 23일 준공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액전문공장 전경